

다산포럼

학교 밖의 학교



강명관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지난 1월 남인도를 다녀왔다. 코전에서 바르깰라로 가는 길이었다. 인도 기차답지 않게 불과 5분 늦게, 아침 7시 5분에 출발했다. 운수대통한 날이라고 속으로 실컷 웃었다. 건너편 좌석에 앉은 초로의 인도인 부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흠칍흠칍 나를 바라보는지 말든지 어쨌든 기분이 좋았다. 기차에 오면 지 5분도 되지 않아 좌석 건너편에 젊은 아가씨 둘이 자리를 잡는다. 입성만 보고도 한눈에 한국인인 줄 알겠다. 일본인·중국인은 같은 동아시아 사람이고 옷차림도 거의 같지만, 어딘가 생김새가 다르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솔직히 사심을 털어놓자면, 내 눈에는 한국 사람이 훨씬 잘 생겨 보인다.

곰방 이야기를 시작했다. 둘은 친자매다. 인도에 온 지 한 달이 넘었다. 몸바이에 내려 고아와 마르가오, 함베를 거쳐 코친으로 왔고 이제 바르깰라로 가는 길 이란다. 바르깰라에 도착하면 좀 쉬었다가 인도 남동부를 돌아 다시 몸바이로 가서 네팔 가는 비행기를 탈 생각이라한다. 네팔에서는, 언니는 직장 때문에 일주일 뒤 귀국하고 동생은 남아서 보름 동안 트레킹을 한 뒤 돌아간다고 한다. ‘대단한 자매’가 아닐 수 없다. 언니는 스물여섯, 동생은 열여덟이다. 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나이로, 아무리 방학이라지만 석 달이나 외국에 나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좀 이상했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눈치껏 봤는지 동생이 자신은 고등학교 나이지런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교는 자신을 옥죄는 감옥 같았고, 그 속에 갇혀 임시 공부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여겨졌다. 그래서 늘 우울했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고 다닐 바에야 그만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부모를 설득해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여행 비용을 만들

었지요. 부모님도 약간 도움을 주셨구요. 나는 내가 번 돈으로 세상을 배운다고 생각해요. 학교를 그만두고 나니, 얼굴도 펴졌고 생활이 활기차게 되었어요. 얼굴이 환해진 것을 보고 학교 그만두는 것을 반대하던 엄마도 이제는 좋아하세요. 학교에서 지내는 것보다 더 보람찬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계발을 해야 하구요. 봉사·운동 등으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고등학교란 것이 상위 10%를 제외하면 별 의미 없는 곳이 아닌가요? 그 10% 외에는 학교는 쓸데없는 곳이라 생각해요.” “꿈도 많은데 학교에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어요. 나는 언니가 내 세계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언니가 여행 다니는 것을 보고 나도 언니처럼 여행을 하고 싶었는데, 학교가 나를 가로막았지요. 학교 그만두고 언니를 따라 다니기 시작했지요. 여행을 하다 보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에 좀 더 능숙해지면 아프리카로 가서 트럭을 타고 여행을 하고 싶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도리어 내가 앞으로 무얼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진지하

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취미로 좋아하는 것과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 고민하기로 하고, 귀국해서 4월에 있는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스킨스쿠버부터 배워 돌 예정이에요. 또 앞으로 학교를 그만둔 나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내고 싶어요. 대학은 꼭 갈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전공을 택해서 가고 싶어요.” 말은 조리 정연했고 거침이 없었다. 표정에는 활기가 흘러넘쳤다. 이 젊은 아가씨는 학교 밖의 학교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다. 이 만남에서 피교육자가 대한민국 교육의 본질적 성격을 꿰뚫어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절감했다. 학교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 이 명백한 사실은 어떤 교육학자도, 어떤 학교도 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젊은 친구가 고등학생 중 10%만 되면 대한민국 교육이 바뀔 것이고 세상이 바뀔 것이다. 3주 동안 인도를 여행하면서 가장 기뻐한 일은 이 용감한 젊은 친구를 만난 것이었다. 몸은 고달팠지만 마음은 도리어 상쾌했다.

NGO 칼럼

당신의 작은 관심이 한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김재준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장

못하고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됐다. 이 사건 이후 아동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사건, 아동이 가구에 흡집을 냈다는 이유로 폭행해 사망하자 마을 뒷산에 유기한 사건 등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 광주에서도 장기결석 초등학생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됐지만 다행히도 사망하거나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아이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매년 아동학대는 증가 추세다. 2014년 도에는 처음으로 1만 여건을 넘겼다. 광주 지역에서도 2015년도 한 해 동안 384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도 253건에 달했다. 2014년과 비교해 각각 73%, 64%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해 3월에는 광주시 북구에서 구순구개열(언청이)이 있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3개월 된 여아의 뺨을 때리고 벽에 던져 아이 머리에 실금기 간 사건도 있었다. 광주 지역 아동학대 신고는 지난해와

비교해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발견율은 최저 수준이다. 아동학대 발견율이란 전체 아동 인구 대비 피해아동 보호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학대 발견율이 높을수록 아동들과 관련된 안전망이 촘촘히 구축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적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냐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아동학대가 조기에 발견되어 끔찍한 사건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학대에 관한 제도적 개선과 노력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 9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었고, 이후에 아동학대 신고 전화가 112로 변경됐다. 이는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한 조치이며 아동학대 현장에 경찰과 아동보호전문 상담원이 동행하게 되면서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망설여도 진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고 훈육하는 모습을

본 이웃에서는 ‘가정사까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 그러나 특별법은 아동의 신속한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뿐만 아니라 가정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아동학대로 112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담, 교육, 치료 등을 통해 가정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변 어른들의 관심과 책임감 있는 신고가 중요하다. 아동은 나이가 어릴수록 지속적인 학대 상황에 익숙해져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 폭행의 특성상 더욱 음성적, 반복적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체벌에서 시작해 아동이 사망하는 끔찍한 결과까지 나오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과 의무다. 항상 주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줘야 하겠다.

기고

이젠 친환경 디자인이다



송진희 한국친환경디자인협의회장

대두되면서 친환경디자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최근, 친환경 디자인은 단지 제품생산 뿐만 아니라 도시경관이나 관광, 농수산업, IT,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상당히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이미 산업현장과 생활 속까지 폭넓게 이해가 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의 친환경디자인은 용어 그대로 환경 친화적이면서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의미한다. 현재 ‘생태디자인’, ‘그린디자인’, ‘에코디자인’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으며, 제품개발과 생산 전 과정에서 사람과 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중심의 환경친화 디자인을 말한다. 환경에 피해를 줄이면서 제품기능과 품질에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디자인으로서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생태계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폐기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에너지 소비가 적도록 설계하고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한마디로 지구를 살리는 디자인이다. 예를 들어 버려진 것들을 재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리사이클링’과 재활용 자원에 디자인이라는 기술적 동기를 부여해 부가가치 높은 상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제품을 일상생활에서 쉽

게 접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새로운 패션 트렌드로 자리잡고 업사이클링 상품들을 명품브랜드화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의 경우 도시 공공디자인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도시의 거리가구를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도시경관을 디자인하고 있으며, 스위스의 한 브랜드는 낡은 트럭용 방수포를 이용해 기능성과 심미성 높은 핸드백을 제작하여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어 매년 500억원 가량의 매출성과를 보이고 있다. 필자는 이처럼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디자인이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전라남도도 협력하여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한국 친환경 디자인협의회’를 지난 2월 16일 출범시켰다. 협의회에는 디자인, 농업, 관광, 경관, IT,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협회의 최우선 과제는 올 5월 나주에서 개최되는 ‘2016 세계 친환경 디자인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계기로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친환경 DNA의 디자인 가능성

과 산업화 가능성을 발굴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우리지역 전남은 친환경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남은 나주 천연염색, 강진 청자 등 산업화가 가능한 친환경 경향자원, 그리고 전체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어 이러한 요소들이 디자인과 조화롭게 결합되면 산업화에 대한 성장 잠재력은 대단히 크다. 하지만 아직 길은 멀다. 이러한 요소들을 결합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친환경디자인 산업화의 첫 시작을 알리는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가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 전남 대표 전략산업이 친환경디자인과 융합되고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해 본다. 오는 5월 나주시 소재 농업기술원과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2016 세계 친환경 디자인박람회가 세계 최초로 열린다. 온 국민이 그 곳에서 친환경디자인을 통한 ‘세상을 바꿀 새로운 삶을 모색’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디자인과 지역의 전략산업이 만나는 친환경 디자인이야말로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것이 될 것이다.

社說

여수 경도 리조트 투자유치 노력 계속해야

여수 경도에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유치하려는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해양관광단지라는 입지 경쟁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에도 가장 절실한 외국 자본 투자 유치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계획 공모 심사 결과, 인천 영종도 관광단지 조성 1곳만 선정했다. 여수 경도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민과 정치권의 노력으로 1차 관문을 통과했지만 사업비 확보에 난항을 겪는 바람에 주저앉게 됐다. 사업자가 5000만 달러 선납과 2억 달러 예치에 실패한 데다 대규모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사를 확보하지 못해 서남해안 해양관광 허브 구축 포부는 일단 물 건너간 것이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경도의 가치를 확인한 점은 적지 않은 수확이다. 중국 등 주변국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미국 경향의 해양 관광과 정취에다 2012년 엑스포를 치른 경험은 큰 자산으로 평가

됐다. 공모를 거치면서 대외적인 인지도 향상으로 잠재 투자자기도 올라갔다.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 또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떠올랐다. 이렇듯 경도가 부각됨에 따라 사업을 주관해 온 전남개발공사는 대안을 내놓았다. 우선 경도를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혜택이 적용되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켜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심사에 참여했던 중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 별도의 국제 공모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도가 관광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 잡으려면 먼저 정부의 전폭적인 배려가 뒷받침돼야 한다. 관련 부처가 외자유치 선결 과제인 경도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편입에 필요한 행·재정 지원에 발벗고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 여수시는 이번 공모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 유치를 성공시켜 복합리조트 조성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대출금리 상승 추세에 죽어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들이 은행 이자 때문에 고민이 많다. 요즘 신용보증기금에는 중소기업의 대출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자금 수요가 물리는 시기인데다 신보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가뜰이나 불황인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IBK기업·KEB하나·KB국민·NH농협·신한·우리·광주 등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는 올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우리은행의 금리가 작년 12월 5.19%에서 2월 현재 5.46%로 무려 0.37%포인트 뛰어 올라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다. 지역 은행인 광주은행도 지난해 말 4.9%를 기록했으나 12월 이후 상승세를 타며 5.10%(1월), 5.14%(2월)로 올랐다. 중소기업에 대한 마이너스대출(인용한도 대출) 금리도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월 현재 KEB하나은행의 경우 5.02%로 전월(4.82%)보다 0.2%포인트 올랐다. KB국민은행도 한 달 사이 0.14%포인트 상승했으며 그밖의 은행들도 0.08% 포인트가량 오름세를 나타냈다. 은행권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자금 조달 비용을 얹어 결정하는데 한은의 기준금리는 8개월째 연 1.50% 수준으로 동결됐지만, 은행들의 대출 기준금리는 오르고 있는 것이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오른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가뜰이나 어려운 경제 사정에 기업 수익까지 감소하면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은행은 ‘바늘 때우산 뺏는다’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돈이 모자라는 유망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수익을 내면 함께 나눠야 할 것이다.

無等鼓

‘귀향’(歸郷)인가, ‘귀향’(鬼郷)인가? 중의적으로 사용된 영화 제목은 후자에 방점을 찍었다. ‘귀신이 돼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제강점기, 꽃다운 나이에 끌려간 20여만 명(추산)의 여성 가운데 모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는 극소수다.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다. 일본은 패전 당시 이들을 죽이고, 태우고, 흙 속에 묻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그리고 지금도 사죄하는 대신 ‘강제 연행’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영화 ‘귀향’(감독 조정래)은 한 점의 그림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지난 2002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생존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 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던 한 젊은 영화감독은 ‘태워지는 처녀들’이라는 그림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16살에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던 강일출(89) 할머니가 미술 심리치료 중에 그린 그림이었다. 그는 영화화를 결심하고 시나리오를 완성했으나 10여 년 동안 투자자를 찾지 못했다. 결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받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도입해 제작비를 조달키로 했다. 시민 7만

5270명의 십시일반(十匙一飯) 제작비 후원과 배우·스태프들의 노케러티 재능 기부로 영화 제작에 나설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픈 삶을 조명한 영화 ‘귀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개봉 5일째인 28일 현재 106만1268명이 관람했다. 지난 주말, 무거운 주제에 대한 약간의 부담감을 지닌 채 광주극장을 찾았다. 영화는 어린 소녀들의 원혼이 ‘나버처럼’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빌면서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는 한판 씩씩함이 있다. 슬프면서도 묵직한 울림을 줬다. “타향에서 돌아가신 20만 명의 억울한 영령들을 뉘어나마 고향의 품으로 모셔와, 따뜻한 밥 한 숟 올린다는 마음으로 만든 영화”라는 감독의 말에 공감할 수 있었다. 오늘은 97돌 3·1절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윈스턴 처칠)”고 했다. 제작에 착수한 지 14년 만에 어렵사리 개봉된 영화 ‘귀향’은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던 일본의 전쟁범죄를 직시해야 함을 일깨우고 있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FAX 222-4938)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정치부 2200-632 문화부 2200-661 (대표 FAX 222-4918)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4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